

연중 제 19 주일

기도서 410 번

제 1 독서 : 열왕 전 19, 4-8  
제 2 독서 : 에 페 4, 30-5, 2  
복 음 : 요 한 6, 41-52

#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사 목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 예수마음 내마음 우리 한마음 한 기 호 신부

“내가 주려고 하는 빵은 곧 나의 살이며 그것으로 세상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요한 6, 51b).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주셨다. 몸을 내주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점을 뜯는 식인종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몸’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몸은 참으로 신비스럽다. 인간은 항상 육체적, 정신적 양 차원에서 존재한다. 인간이 순수한 정신이 되거나 순수한 육체만으로 되어버린적은 없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인간은 신체적인 면에서 신경조직 기관을 통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정신적인 면에서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는 순수 물리적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이 빛나고 얼굴 빛이 환해진다. 반면 슬플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어둔 표정을 짓게 된다. 괴롭고 고통스런 일이 겹치게 되면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 해도 살이 빠지고 어느 기관이 고장난다. 일생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의 몸에는 기쁨과 평화가 감돌고 악한 일을 많이 해온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몸도 예수의 마음과 생활이 듬뿍 담긴 몸이다. 그 마음이란 어떤 작은사람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그 생활이란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시는 생활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에 어느 한 순간도 그치지 않으시고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당신의 마음이 담긴 몸을 사랑의 제물로 내주시어 우리가 먹고 바로 예수의 그 마음과 생활을 살아가길 원하셨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소용이 되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한다. 소월(素月)은 님이 가시는 길에 꽃잎이 되어 님께서 밟고 지나가시길 바랐다. 예수의 마음은 스스로가 빵이 되시어 우리 모두에게 먹히기를 소망하신다. 당신 전체가 십자가 위에서 부수어져 가루가 되므로써 우리 입에 들어가 쉽게 녹아 살아가도록 바라셨다. 예수님의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해야할 수 없는 신비인지 묵상하면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예수의 생활이 내 생활이 되도록 마음 깊이 되새겨야겠다.

(대야 천주교회 주임신부)



## 두 토막 이야기

1.

광주와 목포간의 직행버스 운행이, 전주에서 군산·이리로 가는 직행버스만큼이나 잦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차를 타는 모습은 참으로 차분했다.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다가 차제가 되면 승차 정원만큼만 차에 오르는 것이다. 종점까지 겨우 두 서너네편 서서 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생소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이라고 한가하지만은 않을텐데...

길게 줄을 서서 인내롭게 차를 기다리다가 앉아서 가는 그들은,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승객들의 태도는 업주로부터 대접받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스스로가 콩나물 시루 속같은 버스에 자신을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다.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제 권리는 제가 지켜야 한다.

2.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 감각이 무디어진 것 같다. 마치 환자가 차츰차츰 단위를 높여가며 약을 쓰다보니,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나 별다른 바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자신과 관련된 없다면 웬만한 일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더운 날씨를, 짜증스러운 나날을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더운날 짜증스럽게 달라붙는 파리를 쫓겠다고 자기 집만 열심히 방역을 해도 사실은 별무 효과이다. 이웃집, 그 동네가 전부 방역이 되어야 한다. 결국 나는 혼자만 아니다. 우리 안의 하나인 것이다. 손톱밑에 가시가 들면 진진경에 자극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단위를 낮추자. 조그마한 일,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관심 좀 갖고 살자.

## 숲 정 이 산책



작은 기사에 큰 내용이...

### 제6대 교구장 착좌식에 대해 알리는 말씀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본 교구 6대 교구장 박 정일(林正一) 주교님 착좌식이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축일인 8월 10(화) 오전 11시에 순교선열들의 피로 다져진 숲정이,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거행됩니다.

□ 전교구민을 초대하지 못하는 아쉬운 사정  
이 뜻깊은 행사에 전교구민을 초대해야 옳으나 무더운 날씨와 장소 사정을 감안하고 보니 교구내 신자는 8백 여명만을 모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비록 자리를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날만은 교구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 참조(참석자 배정 내용)...중앙 54, 창인동 43, 진동·노송동 41, 덕진 31, 정읍 30, 김제·고산·합월 28, 서학동 24, 부안 23, 둔물동 22, 월명동·신태인 21, 오룡동·삼례·남원·진안 20, 장계 19, 북자·술정이 17, 주현동 16, 한들·화산·용안·황동 15, 수류·파티마 14, 고창·여산 13, 대야·임실·상관·무주·장수 11, 순창·금마 9, 월명 7명(본당 신자수에 비례한 산출임)

□ 참석자들에 당부 말씀  
첫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타교구에서 오시는 손님들보다 먼저 오시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0시30분까지는 식당에 입장해 주십시오.

둘째, 단정한 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좌식중에 교구내 사제단의 순명서원이 있오니 신부님들은 정장해 주십시오. 일반 평신도들도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셋째,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전주 시내 교우들께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82. 8.

제 6대 교구장 착좌식 준비위원회  
지도위원장 김 환 철 신부  
준비위원장 양 상 렬

### 박 정일 주교님을 맞이하며

박 정일 주교님!  
우리 모두 환영의 축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새 주교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다리듯 우리 7만의 신자들도 우리의 새 힘이 되실 주교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구의 선임 김 재덕 주교님께서 작년 4월 11일 교구장직을 사임하신 후 오늘 이날을 맞이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의 소문과 상쟁과 여론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지난 6월 24일 보도에 제주 교구의 박 정일 주교님께서 우리 교구의 주교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교구의 신자만이 아닌 전 한국 교회 신자들의 축하 인사였습니다. 늘상 들어오던 하느님의 뜻을 이때서야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주교님! 주교님께서 남녘 땅 제주도에서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하셨는지요? 우리도 주교님도 모두 한마음으로 VOLUNTAS TUA(하느님의 뜻)으로 성모님의 신앙과 점촌과 영광과 십자가를 받는 자세였음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주교님께서 선량하고 조용하신 성품에 학덕이 뛰어난 분이요 본당 사목, 대학의 교수직을 거쳐 제주 교구장에서 우리 교구로 오셨으니 그 많은 체험이 바로 우리 교구의 희망이요, 빛이요, 힘이 됩니다. 이미 우리 교구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본당 39개, 사제 89명, 신자가 7만이 됩니다. 1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작은 교구로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우리의 손으로 이처럼 큰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큰 나무를 대견히 쳐다보시며 기뻐해주시고 또 짙은 것은 아낌없이 짜르고 더욱 성장하도록 많은 거름을 주십시오. 10월 한국 교구의 전주교단과 전주 사제단, 7만의 신자들과 교회 내의 귀빈들의 박수갈채와 하느님의 고귀한 축복이 우리 교구와 박 주교님께 풍성이 내림을 보게 됩니다.

주교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지만 우리 교구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구의 주교 성성을 통하여 받은 주교님의 직무인 교도적과 사목행정의 여러 가지 수행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치하며 기도와 희생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양떼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착한 목자로서의 힘차고 보람된 생애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며 주교님을 맞이합니다.

## \* 축! 제 6대 전주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 착좌 \*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전 일 관 광

전 화 ⑧ 6 6 6 6 ~ 8  
조 (안토니오)선  
박 (가브리엘)용 이 안내합니다

주단·포복(홍수·획갑옷 감)도매상  
각종 숄, 이불(빙크)카벤지 도매상

### 서 울 주 단

전 화 ③ 0 4 5 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교우의 식당

### 味 滿 회 관

(舊. 석교리랑 집)  
단체·연회식·냉난방 완비  
정성을 다해 양식껏 모시겠습니다.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북은행 후문 앞, 협성아카데미트릿집  
전 화 ② 9 3 0 1 김 기봉(베난시오)



## □ 어린이 후보 발간

우리 교구에서도 어린이들 만을 위한 후보가 8월 8일부터 발간된다. 어린이들 만을 위한 후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차례 발간을 시도한 끝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후보를 통해 어린이들의 신앙심이 더욱 돈독하게 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본다.

## □ 숲정이 500호 기념집 발간

10여년 동안의 결실을 한 권으로 묶어 기념집을 만들었다. 제1부 사제강론, 2부 전례·교리 상식, 3부 격동기의 교구 10년사, 4부 대화의 광장, 5부 부록(주소록)으로 엮었다. 성서처럼 저자도 문체도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걸어온 증인으로 우리의 역사를 반영해주어 우리의 구원사를 보게하는 듯하다. 사정상 2천부 한정판으로 내게되어 고루 나눌 수 없음이 아쉽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양장 400면, 8월 10일 발행)

## □ Marriage Encounter(M. E.) 1차 강습 성료

요즘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 M. E. (부부 일치) 운동이 본 교구에서도 지난 주말(7. 30-8. 1)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 모든 가정과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부풀게 했다.

두 분 신부님을 포함 모두 16쌍의 부부들이 모여 기쁨에 찬 성가정과 새 사랑을 일구는 모습에 좁은 콩크리트 건물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앞으로 모든 가정에 이 운동이 두루 파급, 빨간 사랑꽃이 활짝 피어나길 빌어다지 않는다.

## □ 가톨릭 센타 예비자 교리반 개강 안내

마른 장마철이라고 표현하는 더위입니다, 3주간의 방학은 짧았지만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다소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셨는지요? 다시 만나서 지난일들을 나누고자 하니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각 반별로 개학일정이 차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족 친치되시는 분들에게서도 이날을 기억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서로 만날 날을 기다려봅시다.

**개강일 : 8월 12일<목>** 오후 7시30분 -1반(김 진소 신부 지도) · 3반(성 태수 신부 지도), 오후 8시-2반(김 봉희 신부 지도), **14일<토>** 오후 7시30분-4반(유 장훈 신부 지도), **18일<수>** 오후 7시30분-6반(김 용태 신부 지도), **26일<목>** 오후 8시-5반(범 석규 신부 지도)

## □ 상관 본당 L.M. 연수회 개최

지난 7월 25일 하루동안 주임 신부님이신 이 상호 신부님의 간곡한 권유로 중·고생을 포함한 신자 3백명이 레지오 1일 연수회를 가졌다. 9명의 강사가 들려주는 체험담을 중심으로 오락과 성가연습까지 곁들여 생활리에 마치면서 전신자가 레지오에 가입하기 바란다는 신부님의 말씀과 강복을 받고 산회하였다.

## 요심이 (470) 김병오

TV에서 천주교를 목할 때는 시민의 소리, 해설 위원까지 동원하여 방송하는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보도대는 해설위원의 열정도 안보이니...

그이유가 뭘일까요? 아- 그래요. 뭐라고 그러니?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보도하는 거래...

### 제3기

## 한솔 야학교 신입생 모집

접수 일시 : 8월 1~21일 (3주간)  
오후 7~10시

접수 장소 : 진동성당 사도회 사무실 2층 교무실

대상 : 중학과정, 고등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주간에 산업전선에서 일하며 야간에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위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솔야학교장

□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 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마렐로)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카데미 내  
전화 6429  
송 배드로(관룡)  
남 베로니카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저거)  
전주 남문열(대지탕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숲정이 「광고」  
이 용 안 내  
숲정의 활발한 편집운영과 교우들의 친교와 유대 협력 관계를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광고 1간 1회 5천원  
문의전화 ⑤ 5098  
숲정이 편집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1지구 교리교사 단합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8월 9일 <월>, 장소-내장산  
※ 9시 30분 정읍 분당 도착, 경비는 각 분당에서 부담
2. 가톨릭센터 예비자 교리반 개학: 12일-1·2·3반, 14일-4반, 18일-6반, 26일-5반
3. M·E 소개의 밤: 일시-21일 <토> 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4. 축! 숲정이 성당 축성식 및 이 바오로 신부님 회갑: 일시-19일 <목> 오후 2시, 장소-숲정이 성당
5. 로사리오회 모임: 일시-7일~8일, 장소-송광사
6. 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7. 축! 영명: 10일-(성라우렌시오) 박진량, 범선배, 전대복 신부



(중암)

전화 ⑥1711~3  
수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진호  
사도 회장

- ※ 성경읽기: 예레미야 28~31장, 마르코 9장 2~9절
- 1. 분당신부님 영명축일(25일):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세요
- 2. 꾸리아: 오후 2시 강당
- 3. 병자방문: 화요일 병자방문 있으니 환자 모시고 계신분 사무실에 말씀하세요
- 4. 성전 신축기금 신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영래·정순덕·신명준(각 50만원), 서정인·최정부·박복순·김동욱·윤두명(각 30만원), 최홍선·이화숙·김춘곤·이숙자·김중섭(각 20만원), 김금순·김행덕·오영신·이길남(각 15만원), 박영자·박정수·정우순·양순자·김희숙·최순향·정화자·원현식·방계순(각 10만원), 임동주·이부득·김상순·이초옥·박화옥·김인중(각 5만원), 최경애(3만원), 총계: 73,168,000원
- 지난주 봉헌금: 669,770원 교무금: 677,0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사 ⑥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중·고등학생 여름 성경학교: 9일<월>~21일<토>까지. 시간-오전 8시30분~12시까지
2.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3. 응변대회 예선: 12일<목> 저녁미사 후
4.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 후
6. 여름 성경학교에 협조하신 분들: 황신숙, 백숙명, 김순영, 서분일선, 서성남, 김상숙, 김규태, 이강진, 박옥혜, 김수산나, 최명자, 박태중, 자비의모친Pr
7. 금주의 성경읽기: 구역에-역대기 하편 전체
8. 1일 찾집: 많은 분들 이용 바람
- 지난주 봉헌금: 338,025원 교무금: 142,000원

(덕진)

전화 ⑥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양철문  
사도 회장 안상열

1.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LM 간부님들 빠지지 마시고 참석 바람
2.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먼저가신 선영들을 기억하고 미사 봉헌바람
3. 금주 이레자: 정두희(스페파노) 가정, 황양금(요셉 피나) 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협조에 감사합니다
5. 주일학교 특별교리: 일일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6. 첫 영성체: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429,785원

(복자)

전화 ⑥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1. 성모 승천대축일: 15일(다음주일)  
강론-부산 하 안토니오 신부님
2. 성지순례: 베론성지, 11일<수> 오전 7시 출발  
※ 회비 3천원, 접수마감(9일), 준비물-도시락, 목주, 기도서, 성가집
3. 자모회 월례회: 8월 9일 어머니미사 후
4. 성우회 야외 단합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출발  
장소-상관천 각시바위 주변
5.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6. 다음주 전례해설: 유덕열, 독서-①이갑진 ②허순덕
- 지난주 봉헌금: 354,510원

(서학동)

전화 ⑥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보좌 신부 사도 회장 황인규

1. 반회장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성당 회합실
3. 성심회 모임: 13일<금> 오후 2시, 장소-성당
4. 할머니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소록도 나환자촌 위문: 16일 오전 5시 반 출발  
지참물-겉집 도시락, 물 지참, 왕복 선박요금 시간 엄수 바람
6. 할머니회: 제대 꽃대(2만원) 봉헌하셨습니다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장태호 ②정형석
- 지난주 봉헌금: 209,710원 교무금: 231,500원

(숲정이)

전화 ⑥7366  
수.유 ⑥9567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수겸

1. 축! 성전 축성식 및 신부님 회갑: 19일 오후 2시
2. 성모회 월례회: 8월 15일 공식미사 후
3. 성모 승천축일: 성가연습 매일 오후 8시  
빠짐없이 나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교님 착좌식 입장: 신작순으로 분당사무실에 접수
5.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전 8시30분, 부모님들 협조 바람입니다
6. 유아세례식: 8월 8일 오전 9시
7. 전례담당: 해설-홍성조  
독서-이동선·김경주, 기도-박해근
8. 미사참례자: 안내-김정숙·신순영·문요안나·전춘자·최옥주
- 지난주 봉헌금: 399,860원

(전동)

신부 ⑥6208  
사무 ⑥3222  
수녀 ⑥8347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송두

- ※ 축! 성모 몽소승천: 15일, 각 단체별 구역별 기념배구대회 12일까지 접수 바람
-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 2.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3. 꼬미시움: 다음주 오후 1~6시, "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움 제25주년 기념연구회 참가대상-꾸리아 간부 전원
- 4. 하계교리: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5. 신축기금: 임중수(파티아) 2만원 감사합니다
- 6.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이현재 ②범덕배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태 ②이영희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이영철 ②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497,74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수녀 ⑥4804  
주임 신부 김영일  
보좌 신부 사도 회장 황희상

1. 첫 영성체: 13일 오전 10시, 첫 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축하를 보냅니다
2. 다음주일은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 중·고학생들은 토요일에 나와 성당 청소로 대축일 위해 봉사합시다
3. 중·고생 지도자, 주일학교 선생님: 단합대회를 무사히 마칩니다
4. 교무금 미신입자 하느님께 감사예물 바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5. 레지오 단원: 예언적 봉사자들을 색출해 기쁜 소식을 적극 선포합시다
6. 성가대: 열심히 연습해서 대축일을 거룩히 지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4,905원 교무금: 252,000원

## 제 6대 전주교구장

# 취 임 사

1. 공경하을 주한 교황대사 Luciano Angeloni 대주교님, 광주 대교구장 윤 공희 대주교님, 제위 주교님, 내외 귀빈 여러분! 전주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오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 저의 전주교구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축하와 격려를 보내 주십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불초 저는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교황 성하의 명을 받들어, 제 6대 전주교구장으로 취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맡게되는 중책을 생각할 때에 학덕의 부족함을 통감하는 저는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의 애호편달과 특히 전주 교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3. 저는 오늘 6년동안 정든 저의 초임지인 제주교구를 떠나는 아쉬움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면서도 오늘부터 전통깊고 자랑스러운 전주교구에 몸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주교구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다져진 믿음의 고장이며, 그 전통에 손색없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방인교구로서 즐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꾸준히 그 전통을 이어가는 7만 교구민의 열띤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통을 더욱 꽃피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교구로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4. 저는 이 자랑스러운 교구의 교구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전주교구를 오늘같이 발전시키는데 노력과 희생으로 공헌한 많은 분들을 기억 안할 수 없고, 머리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반세기를 자랑하는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들이 밀거름이 되어 우리 교구는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에게는 오늘 역대 교구장님들의 노고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교구를 위하여 힘껏 봉사하시다가 건강마저 잃으신 우리의 제 5대 교구장이신 김 재덕 주교님께 각별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성직자 양성과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 교구 행정체제의 제도적 확립 등 남다른 공적을 남기신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교님께서 닦아놓으신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일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될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5. 친애하는 전주교구 교형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전주교구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향해 나아갈 공동목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구가 진실로 **“사회안에 현존하는 교회”**(즉 사회와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하고, 애환을 함께 하는, 사회와 격리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6. 교회는 세상에 파견되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사회를 복음화 함으로 하느님의 나

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져 있어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음식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음식을 맛들이게 할 수 없고(마태 5, 13), 누룩이 반죽속에 들어가야만 그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치라 하겠습니다. (마태 13, 33), 교회는 사회안에 현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일에 참여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 생활과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뿐 아니라, 의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교황님들의 사회 회칙이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여러 문헌들이 거듭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 지난 5월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인간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속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 예술, 산업, 상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책임”이 평신도들에게 있으며 “겨레의 어떤 생활 환경 속에도 교회가 부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8. 교회가 사회안에 효율적으로 현존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군비와 전력을 정비하지 못한 군대가 전쟁에 이길 수 없듯이 교회도 그 자세를 가다듬고, 사회에 임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복음화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 사회안에 현존하는 교회에게 첫째로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정신자세입니다. 저는 그것을 **순교자의 영성**, 다시 말해서 철저한 순교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유서깊은 순교의 고장 숲정사에서, 초대 교회의 순교자 성 라우렌시오 부제 축일을 택하여 이 취임식을 가지면서, 순교정신에 대하여 언급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교정신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항상 지니고 살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자세(영성)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하느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시이며,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첫째가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의 최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정신은 또한 용기와 희생심을 뜻합니다. 용기와 희생심없이 순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실현하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있을 때에 용기와 희생심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가끔 교회를 뒤흔치고 고통을 줍니다. 또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데는 용기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의 긴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체험해 왔고 한국 교회와 우리 전주교구도 그러한 생생한 체험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은 오늘 이 시각에도 그러한 사태가 국내 몇군데서와 우리 전주교구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 기식 신부 및 노동청년회원 해고 사건)

우리 교장은 자랑스러운 순교의 터전이요,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이어받은 후손들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용감히 목숨을 바쳤듯이 오늘 우리들도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혼연

히 감수하는 순교정신을 몸에 지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0. 사회안에 현존하는 교회의 자세로서 두번째로 꼽혀야 할 것은 자기 **새신**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음같이(루가 6, 39) 그리스도 신자도 사회를 성화하기 위하여는 자신부터 성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화와 새신없이 남을 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진실한 태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신하면서 사회의 평화와 복음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안에 현존하기 위한 교회의 자기 새신은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예 ; 전례, 교회행정, 제도, 교육 등등)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새신에 대하여 우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하고 실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1. 세번째로 사회안에 현존하는 교회가 지녀야 할 태도(자세)로는 **시대의 표징과 사람들의 필요를 재빨리 파악하는 감수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사회를 복음화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대 인간사회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그 표징에 대하여 교회가 무관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서두에서 교회의 이러한 자세를 “교회는 현대 세계의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번뇌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사목헌장 1)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표징과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거기에 적합한 행동으로 사회안에 현존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교회의 모든(사목) 활동은 공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클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오늘 우리 사회의 표징을 읽을 줄 알고, 오늘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12. 그런 뜻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과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 때에 그것은 밝기 보다는 어둡고, 희망적이기 보다는 절망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의 독재와 강권정치에서부터 파생된 많은 악폐들(부정부패, 권력남용, 부정축제, 법질서의 파괴, 불신풍조, 가치관의 전도, 윤리도덕의 퇴폐 등등)은 우리 사회를 깊이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유신정권이 입이 마르게 자화자찬한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은 드디어 이 땅에 배금사상과 금권만능주의, 쾌락주의 사조 등을 만연케 하여 부지불식간에 유물주의를 낳게 하였으며, 북한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우리 국민의 정신자세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3.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 교회는 과연 이러한 징표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 구원과 복음화를 위하여 손길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교회의 자기 새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겨레의 구원을 떠맡고 나선지 어언 200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는 내적으로 과감한 새신을 이룩하고 우리 겨레가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14. 지금까지 저는 교회가 사회안에 현존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세 몇가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가지를 열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과 관용의 자세,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배려, 모든이와 대화하는 자세, 겸손하고 가난한 자세 등등),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일일이 언급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 친애하는 전주교구 교형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전주교구장으로 취임하는 이 장엄한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력을 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전주교구 성직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하직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셨읍니다. 우리들의 사목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우리들간의 사랑의 일치와 공동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앞으로 전주교구를 더욱 빛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제단의 일치와 교구장인 저와의 일치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교구내 남녀 수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장 사람들에게 생활로서 중말론적 찬상가치를 보여주어야 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봄으로 참다운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밝고 투명하게 복음적 덕행을 생활화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교구 사목방침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교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교구 남녀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회안에서 교회를 보여주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들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안에 현존하느냐 못하느냐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공 장소와 놀이터에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 가기를 당부합니다.

16.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삼복더위에 이 자리에 왕림하시어 저의 전주교구장 취임식을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이 식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수고하신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2. 8. 10.

전주교구장 박 정 일 주교